

초등 3학년
독후활동지 (학생용)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어요



거짓말 삽니다

글 김일옥 | 그림 토리

스폰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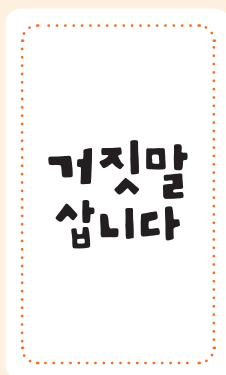
거짓말 삽니다

- 글: 김일옥
- 출판사: 스펀북
- 분량: 136쪽
- 주제어: 언어 습관, 학교생활, 우정, 바른 말
- 교과 연계: [국어 2-1] 9. 생각을 생생하게 나타내요
[국어 2-2] 4.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요
[국어 3-1] 1. 재미가 톡톡
[국어 3-1] 6. 일이 일어난 까닭
- 그림: 토리
- 정가: 12,000원
- 대상: 초등 3학년

📖 책 소개

엄마에게 한 거짓말을 사겠다고 고양이 울치 씨가 코인을 주고 갔어요. 알고 보니 민우가 한 거짓말을 진짜로 만들어 주는 굉장한 코인이었지 뭐예요? 이 코인만 있으면 82점짜리 시험지도 100점짜리 시험지로 바꿔 엄마 아빠 기분을 좋게 만들 수도 있지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울치 씨 같은 '거짓말 장사꾼'들은 절대 손해 보는 거래를 하지 않으니깐요. 민우가 울치 씨와 어떤 거래를 했는지 함께 읽어 보아요.

📖 주요 독후 활동



책 읽기 전 ① 표지 살펴보기
② 어휘 살펴보기

책 속으로 ① 이야기 정리하기
② 마음 읽기

책을 읽고 나서 생각해 보기





독서 전

책 읽기 전 ① 표지 살펴보기

• 책의 앞뒤 표지의 제목, 글귀, 그림을 살펴봅시다.

1 책의 제목을 살펴봅시다.

이 책의 제목은 '거짓말 삽니다'입니다.
거짓말을 팔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2 표지 속 그림을 살펴봅시다.

- 거짓말을 산다고 말하는 건 누구일까요?
- 두 인물의 기분은 어떤 것 같나요?



독서 전

시작하기 ② 어휘 살펴보기

• 책의 앞뒤 표지의 제목, 글귀, 그림을 살펴봅시다.

[보기]에 있는 꾸며 주는 말을 사용해 문장을 채워 보세요.

[보기]

쭈뼛쭈뼛

뚝뚝

성큼성큼

코코

파르르

데굴데굴

엄마는 () 다가와 이불을 획 걷어 냈다.

고양이가 들고 있던 우산에서는 빗물이 () 떨어지고 있었다.

올치 씨가 코를 실룩거리자 수염이 () 떨렸다.

매번 가슴을 () 찢러대는 바늘이 아니었다.

슬슬 머리털이 () 서기 시작했다.

민우는 거실을 () 구르면서 웃었다.





독서 중

책 속으로 ① 이야기 정리하기

민우는 올치 씨에게 거짓말을 팔아 코인을 하나 받았어요. 민우는 과연 코인으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이야기 순서대로 번호를 써 보세요.

1

민우는 올치 씨에게 거짓말을 팔아 코인을 받았어요.

사고가 난 민우는 병원에 입원해야 했어요.

100점을 맞은 기념으로 엄마가 민우에게 새 자전거를 선물해 주었어요.

민우는 코인으로 82점짜리 수학 시험지를 100점짜리로 바꾸었어요.

민우는 새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와 부딪혀 사고가 났어요.

6

올치 씨가 민우의 병문안을 와 인생 거래를 하자고 말했어요.






독서 중

다음 각 장면에서 등장인물의 마음이 어땠을지 짐작하여 써 보세요.

장면①	등장인물의 마음
<p>빠거덕.....</p> <p>웬지 도둑놈이 조용히 장롱 문을 여는 것 같다.</p> <p>‘빈집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날 보면 어떡하지? 숨어야 하나?’</p> <p>후드득!</p> <p>앞사귀에 가득 맺혀 있던 빗물이 아래로 떨어졌다. 민우는 깜짝 놀라 이불을 귀까지 뒤집어썼다. 발자국 소리를 죽이면서 거실을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린다.</p>	

장면②	등장인물의 마음
<p>“네, 올치올시다.”</p> <p>“저예요, 민우.”</p> <p>“네, 민우 군. 빈터로 나오지 않고 뭐 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는 벌써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p> <p>“아까..... 전화로 한 말..... 뽕이에요.”</p> <p>민우는 짹짹 전화기를 내려놓았다.</p> <p>우하하하! 민우는 거실을 데굴데굴 구르면서 웃었다. 속이 뽕 뚫린 느낌이었다.</p>	



독서 후

책을 읽고 나서: 생각해 보기



만약 여러분 앞에 올치 씨가 나타났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아래 자유롭게 표현해 보아요.

나는 거짓말을
팔 것이다.



코인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나는 거짓말을
팔지 않을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